

### 신·기보, 중기 보증여력 6조6억 원 확충

올해 상반기 중에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신규 보증여력이 6조원 이상 확충된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국민은행과 농협 등 6개 은행이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보와 기보에 총 5500억 원을 특별 출연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연금은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은행이 각각 1천억 원, 농협이 500억 원이다. 신보와 기보는 출연금의 12배까지 보증을 설 수 있어 신규 보증여력이 6조6천억 원 늘어난다. 다만 특별 출연한 은행들과 업무협약 등을 맺어 해당은행이 거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보증을 하게 된다. 은행들은 신용보증기금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2월 중에 1차 출연을 하는 등 올해 상반기에 모두 출연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서비스분야 R&D에 총 50억 지원

새로운 서비스 상품 개발 및 제조기술과 서비스가 결합하는 융·복합기술에 대한 R&D 지원을 통해 서비스분야가 새로운 R&D 영역으로 개척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2009년도 중소기업 서비스 연구개발사업 지원대상 업체를 과제당 1억원 범위 내(총개발비의 75%이내)에서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중소기업 서비스 연구개발사업 지원사업은 신사업모델개발, 시장동향 모니터링기법, 선진물류유통시스템구축, 브랜드개발 및 인지도분석, 자사와 경쟁사간 통합시물레이션 등 중소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서비스분야의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중소기업청에서 2007년 국내 최초로 도입한 이래 100억 원을 투자하여 135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참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통해 95명의 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창출에 기여하였다. 금년도에는 비해 인건비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견본시작품에 대한 수요자 반응조사 의무화, 평가위원 풀을 확대하여 사업화 가능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창업 우수아이디어에 최대 5000만 원 지원

우수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기업은 5천만원 한도내에서 아이디어에 대한 상품화 제작·소비자평가·사업화기획·마케팅 등 상업화를 위한 일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의 일괄지원을 수행할 주관기관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생산기술연구원을 선정하고, 선정된 주관기관을 통해 아이디어사업자의 지

원 신청을 받는다.

금년에 신규로 도입되는 아이디어상업화 지원 사업은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창업을 하려해도 아이디어 상업화 타당성 및 성공 가능성, 상품화 제작비용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망설이고 있는 예비창업자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총 264억 원 규모로 시행되는 동 사업에서 선정된 아이디어사업자는 상품화 제작 및 소비자 반응평가, 사업화기획, 마케팅자문, 투자자금 연계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지원을 받게 되는데 총 530여개의 아이디어가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조건은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아이디어사업자별 5천만 원 한도 내로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현물포함)은 아이디어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국세청, 사실증명 발급시스템 개선

국세청은 사실증명 내용을 표준화하고 발급과정을 전산화하는 등 사실증명 발급시스템을 개선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사실증명이란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기존에 전산으로 발급하던 10종의 민원증명 외에 사업자등록 여부나 체납내역 등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사실확인을 증명하는 문서다. 국세청은 다양한 사실증명 내용을 유형별로 표준화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내용은 “위 납세자는 발급일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로, 체납내역은 “위 납세자는 0000년 0월 0일 현재 부가가치세 000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등으로 표준화된다.

### 작년 12월 광공업생산 40년 만에 최저

작년 12월 광공업 생산이 4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져 사상 최악을 기록했고 연간 광공업 생산 증가율도 2001년 0.6%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광공업생산은 전월대비 9.6%, 전년동월 대비 18.6% 급감했다. 통계청은 1970년 1월 이후부터 광공업 생산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12월 증가율은 이 중 최저치다. 생산부문이 40여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추락한 것. 광공업생산은 작년 11월에도 -14.0%로 통계작성 이후 최저였다. 전년동월 대비 광공업생산 증가율은 지난해 4월까지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했지만 5월 8.6%, 6월 6.6%, 7월 8.7%, 8월 1.9%, 9월 6.2%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10월 들어 마이너스(-2.3%)로 반전했으며 11월 -14.0%에 이어 12월엔 감소폭이 더

욱 커졌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62.5%로 전월에 비해 5.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1980년 9월의 61.2% 이후 가장 낮은 수치. 12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대비 0.4% 증가했지만 전년동월 대비 1.0% 감소했다. 생산자제품 출하는 반도체·부품, 자동차 등의 부진으로 전년동월 대비 15.4%, 전월대비 6.6% 줄었다. 생산자제품 재고는 전년동월 대비 7.0% 증가했지만 전월 대비 6.8% 감소했다.

### 소상공인 체감경기 사상 최악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 상황이 사상최악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에 따르면 전국 1800여개 소상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경기 동향을 조사한 결과, 1월 체감경기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38.7로, 직전 조사시점인 작년 11월의 52.7에서 14.0포인트 급락했다. 이는 200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기존 최저 기록이었던 2008년 7월의 51.0보다도 12포인트 이상 낮은 것이다. 2008년 1월(79.3)과 비교하면 1년새 무려 40포인트 가량 추락했다. 업종별로는 학원업(58.0), 개인서비스업(45.5), 음식업(43.8), 오락·운동서비스업(36.8), 자동차전문수리업(35.4) 등 조사대상 모든 업종이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 산업은행, 올해 12조 중소기업 지원

산업은행이 본격적으로 중소기업에 자금을 풀기로 했다. 민유성 산업은행장은 최근 올해 작년보다 2조원 늘어난 총 12조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겠다고 상반기에 목표액의 60%를 공급해 실물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든든한 우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 은행장은 정부가 선정한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녹색기술산업 지원을 위해 우수한 중소기업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제도인 KDB 글로벌 스타(Global Star)제도를 적극 운용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일 중소기업 기술교류센터 설치

한국과 일본의 중소기업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일기술교류센터'가 일본 중소기업청에 설치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지난 2월 5일 니카이 토시히로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및 하세가와 중소기업청 장관을 만나, 이같이 합의하고 양국 부품소재 중소기업간 기술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니카이 대신은 '한일 중소기업 기술교류센터'는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중소기업청의 하세가와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고, 현판도 일본어와 한국어로 제작,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되는 기술교류 센터는 양국 부품소재 중소기업간 교류 촉진을 통해 양국간 무역역조 해소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일본 중소기업청 내에 아시아 담당 창구를 두어 2개월에 1회, 연 6회 대표단을 구성, 한국에 파견하기로 니카이 대신이 직접 결정했다.

### 경기도 '수출 서포터스'로 기업 돕는다

경기도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수출 서포터스'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7억5천여만 원을 들여 수출업무 분야 경력자와 대학 무역관련 학과 전공 청년실업자들을 선발, 수출 서포터스를 구성한 뒤 이르면 4월부터 도내 100개 수출기업에 배치할 계획이다.

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도 3월부터 수출컨설팅 전문가 3명이 상주하는 수출지원 전담창구를 개설, 기업들의 수출 애로사항 해결 및 수출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공산품 전문 인터넷 쇼룸을 5월부터 운영하는 한편 도가 자금을 지원하는 해외 마케팅 참가기업의 자격을 완화, 수혜 기업폭을 넓히기로 했다.

오는 11월에 예정돼 있던 외국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도 3월 24~25일로 앞당겨 수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망 수출기업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인도 브라질 중국 등 신흥개발국을 중심으로 올해 18차례 상품 해외전시회를 개최하고 해외 통상촉진단을 15차례 파견하기로 했다.

### 중소기업 지재권 보호책 마련 시급

중소기업의 지재권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의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 국내기업 중 28%가 지재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업체당 5.7건)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5월부터 추진된 금번 실태조사는 국내외 지재권 침해로 인한 국내기업들의 피해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최초의 정부공식 통계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3년간 산업재산권 출원건수 15건 이상인 364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08.9~11)에 따르면 응답기업 1049개 중 28%(294개) 기업이 총 1665건, 업체당 5.7건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를 모집단 전체(3644개)로 환산하면 약 1천여개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 코트라, 공동물류센터 20곳으로 확대

코트라(KOTRA)가 중소기업의 물류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전세계 공동물류센터를 지난해 14곳에서 올해 2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동물류센터가 새로 들어서는 곳은 상하이 등 중국 3곳, 유럽 제2의 항구인 벨기에의 안트워프, 남미 최대 수출 지역인 상파울루 등 총 6곳이다. 코트라의 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수는 지난해 141개사에서 올해는 400개사, 2011년에는 600개사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기업은 창고료와 하역비로 평균 520만원까지 지원 받는다.

중소기업이 해외 물류센터를 이용하면 신속한 납품이 가능해 해외 주문을 받기가 쉬워진다. 유럽은 주문을 받은 후 납품까지 운송에만 30일이 넘게 걸리지만 현지에 물류센터가 있으면 1~2일만에 납품이 가능하다. 바이어 역시 재고를 쌓아두지 않아도 물류센터에서 빠르게 제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고 부담이 줄고 주문량을 늘릴 수 있다.

물류센터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협상력도 높아진다. 인근 지역에 창고를 두고 적기 납품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공동물류센터는 게다가 물류비를 약 30% 낮추는 효과도 있다. 창고를 공동으로 쓰면 창고 관리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 녹색성장·수출 중기 대출 100% 보증

올해 중소기업 가운데 수출기업, 녹색성장기업, 우수기술기업, 창업기업 등의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100% 보증을 서준다. 또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보증에 대해서는 전액 만기를 연장하고, 신규보증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이 완화되고 보증한도도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 2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보증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대출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수출기업·녹색성장기업·우수기술기업·창업기업 등 핵심분야 기업들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아래 지난해 19조6천억 원이었던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규모를 올해는 총 23조6천억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현재 95%인 보증비율을 100%로, 30억 원인 보증한도를 100억 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부도 및 폐업 등을 제외한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보증에 대해 만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써 올해 보증만기 도래분 총 34조원(23만7천개사)이 만기연장 지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 중기 정보화 수준 대기업의 76% 수준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이 매년 향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기업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지난해 7~10월까지 4516개사(중소기업 4043개, 대기업 473개)를 대상으로 정보화 수준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은 53.6점, 대기업은 70.23으로 집계됐다. 정보화 수준은 IT 인프라 구축 정도, 활용도 등을 업종별·규모별로 측정, 평가해 점수화 한 것이다.

이는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정보화 점수가 76.3% 수준에 달하는 수치로 다행히 지난 4년간 중소기업의 정보화 점수는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업(64.0점)과 도소매업(56.2점)의 정보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건설업(50.6점)과 운수업(51.2점)은 낮게 나왔으며 지역별로는 서울(56.88점), 경기(54.74점), 대전(54.61점)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정보화 수준향상을 위해 올해 17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성장형 정보화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합의를 통해 임금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2월 12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이후 첫 당정협의를 개최해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조기에 추진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종업원의 임금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키로 했다.

단 매출액 혹은 생산량이 직전연도 대비 10%이상 감소하였거나 재고량이 50% 증가한 경우로 한정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수가 직전 연도 대비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이밖에 미분양 주택 양도세 한시 면제, 재산세 소급감면에 따른 중부세 추정 배제, 금융소외자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기금 세제지원, 교육비 소득공제 범위에 교복 구입비용 추가 등을 추진한다.

### 기업들 투자 30% 줄인다

국내외 경기침체로 올해 국내 기업들의 투자규모가 지난해보다 평균 30% 정도 줄어들 계획이어서 미래 성장동력 훼손이 우려

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전국 1천여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설비투자계획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올해 투자를 지난해 대비 평균 29.5% 줄인다고 응답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은 25.8%, 중소기업이 31.5%를 각각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2008년 투자실적도 당초 계획대비 28.8% 감소했다고 밝혀 기업들의 투자부진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조사 결과, 올해 투자를 전년에 비해 축소하겠다는 기업들은 국내수요 부진(49.5%)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다음으로 수출부진, 자금조달 애로, 기존설비 과잉 등을 꼽았다. 업종별로는 섬유·의복·신발 업종이 -48.0%로 투자를 가장 많이 줄일 것으로 조사됐다.

### 중기 훈련·인건비 지원사업 설명회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2월 13일 '중소기업 유급휴가 훈련 및 대체인력 고용 지원사업' 관련 설명회를 공단본부에서 연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근로자에게 4주~1년간의 유급휴가 훈련을 제공하고, 이로 인해 비게 되는 일자리에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훈련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류접수는 3월 13일까지다. 문의 (02)3271-9356~7.

### 중소기업 애로해소 'Hot-line' 설치

대전광역시(시장 박성효)는 최근 금융경제위기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격적 행보가 시작됐다. 대전시는 지난 2월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15개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를 김홍갑 행정부시장 주재로 개최했다.

박성효 시장은 미국 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경기 침체가 급속히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쳐 지역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진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 Hot-line을 설치하여 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어려운 경제현안들을 서로 숙의하는 긴급통신을 개설했다. (전화: 600-2001, FAX: 600-2009)

Hot-line은 대전경제를 위기로부터 제일 먼저 회복시키고자 하는 시장의 의지가 담겨 있으며,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표들로부터 직접 어려운 상황을 전해 듣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이는 공격적인 실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애로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대책을 통한 중소기업 특별유자 실시, 경영안정자금 상향과 이차보전의 상향 조정, 신용보증 규모 확대 등 기업지원과 애로사항 전반에 대한 상담창구를 활짝 열어 놓았다.

기업지원과에 기업불편애로 상담창구를 개설했으며, 휴일도 접수하는 대전광역시 콜센터(국번없이 120번)로 상담하면 언제든지 불편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 고용유지·무분규 기업 세무조사 유예

일자리 창출기업과 노사 무분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최근 회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기업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조사 선정제외 및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나누기·무급휴직합의 등 노사간 양보교섭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과 노사문화 우수 중소기업 등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금경색기업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체납처분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조치를 통해 기업이 세금문제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분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중소기업 및 서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나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 경기도 중기 지원자금 1조5천억 원 분다

경기도는 경제침체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1조5천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지난 2월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지원부문은 운전자금, 시설설비·연구개발·공장 건축 등 시설투자 사업비, 신기술 개발, 벤처 창업, 소상공인 창업, 여성 창업, 아파트형 공장 및 벤처집적시설 건립사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가능하다.

특히 원자재구입과 임금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으로 7880억 원을 지원한다. 또 자금 지원이 쉽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가능등급을 B등급에서 CCC등급으로 완화하고 보증한도액을 매출액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조정하기로 했다.

보증비율 역시 85%에서 3000만원 미만의 경우 100%, 그 이상은 95%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